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위하여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고린도후서 5장 15절)

주 안에서 사랑하는 귀하신 동역자님들께,

그동안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2019년도 벌써 8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second term(5월부터 8월) 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돌아보며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1. 제자 양성 역사

5월 12일에 목동선서(ceremony for appointing young disciples)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근 2년 동안 꾸준히 성경을 공부하고 자란 자들로서 모두 교회 학생회 임원들입니다. 총 6명으로 Paddy(공대 4학년), Gerald(간호학과 3학년), Chrispus(사범대 3학년) Calvin(언어치료학과 2학년), Josuha(농과대 1학년), Derrick(농과대 2학년)입니다. 이중 Joshua는 작년 1학년 때부터 성경공부를 꾸준히 하였으나 학비를 마련하지 못해 1학년을 다시 다니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가정 형편으로 인해 마음에 상처가 있었으나 레베카 선교사님, 임 누가 선교사님과 꾸준히 성경 공부를 하는 가운데 말씀으로 치유되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다고 간증하였습니다.

사진1: 5명의 요회 리더들이 목동들을 위해 축복기도 해주고 있습니다. Chrispus는 시험이 있어서 소감 발표 후 바로 학교로 가서 사진에 없습니다.



2. 여름 방학 프로그램

이번 방학에도 집에 가지 않은 학생들이 있어서 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였습니다. Program theme은 '부흥'이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총 7주간 14강의 사도행전 말씀 공부와 writing reflection(말씀 공부에 기초한 소감 쓰기)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를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배우고 주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고자 결단하게 하셨습니다. 꾸준히 8-10명 정도의 학생이 참석하였으며 주말에는 성화 상영을 하고 또 현지 목자님 가정들과 선교사님 가정들에서 풍성한 식사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3. 선교사 사도행전 말씀 공부.

저는 최근에 동아프리카 부흥에 관한 책을 읽고 그동안 선교사라고 하지만 그리스도를 위해 살지 못하고 저 자신을 위해 살았던 자신을 발견하고 깊이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지부장인 저부터 또 우리 선교사님들부터 심령을 새롭게 해야 됨을 깨달았습니다. 최근에는 올해 부활절 수양회 요절이었던 고린도후서 5장 15절과 저의 올해 개인 요절인 빌립보서 1장 20,21절 말씀을 날마다 수첩에 적으며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이미 죄로 죽은 저를 위해 살지 않고 저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 살 수 있기를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선교사님들끼리 모여서 사도행전 말씀

공부를 2주에 한 강씩 총 14강을 돌아가면서 섬기고 있습니다. 시간에 매이지 않고 깊이 있게 성경공부하고 전체 기도제목과 서로의 개인 기도제목을 나누면서 합심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후, 리더 모임이 끝난 후에 하려고 하니 줄리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귀한 선교사님들끼리 교제를 나누고 나면 새 힘을 덧입게 됩니다. 올해 말까지 지속되는 사도행전 말씀 공부를 축복해주셔서 저희 선교사님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주시고 저희 먼저 개인적인 부흥을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4. 요한복음 말씀공부

저희는 매주 요한복음 말씀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빛과 생명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따를 때 우리의 삶이 빛과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고 더 이상 어두움 가운데 다니지 않게 됨을 배웁니다. 실제 삶속에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어두움을 심고 빛 되신 주님께로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어떤 책 제목처럼 우리는 날마다 빛과 어두움의 전쟁을 치르고 있음을 배웁니다. 죄악 되고 연약한 저는 자주 유혹을 받고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따를 때 예수님은 저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을 없애주시고 빛 가운데로 걷게 하심을 배웁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 저희 가운데 빛과 생명이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음은 저희의 기도제목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제목:

1. 건축 역사

지난 1년 6개월 동안 준비해 온 교회 건축 설계가 드디어 마무리되어 시청에 제출하고 건축 허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사진 2. 교회 건축 청사진입니다.) 허가가 나고 실질적으로 건축이 시작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는 올해 요절로 내 집을 지으라(build the house of the Lord 학개 1장 8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건축 위원장을 비롯해 주인의식을 갖고 섬기고 있는 현지 리더들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건축을 위한 필요한 물질을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도 실질적인 믿음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 목자 학교

Yo
현
리
따
불
할
이
운
프
11



발행된 'A guide to raising disciples of Jesus' 교제를 기본으로 하여 매주 토요일에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주님의 제자는 누구인가?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하는가? 등에 대해서 성경공부를 하고 매주 주일 소감을 쓰고 매일 일용할 양식을 써먹으며(quiet time을 매일 갖는 것). 매주 한 사람과 성경공부를 하는 것 등을 훈련하고자 합니다. 1년 이상 된 목동들 중에서 목자로 살고자 하는 소원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인생소감을 제출하고 선교사나 요회 목자의 추천을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자 합니다. 목자 학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ung disciple(목동)이 된 후에 목자(주님께
신된 자)로 성장해야 하는데 많은
더들이 목동으로 머물러 있어서 년수에
라서 senior목동, junior목동 new목동으로
렸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돕고 섬겨야
지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때 하나님께서는 목자 학교를
영하도록 방향을 주셨습니다.
로그램은 3개월 과정(9월부터
월까지)으로 이번에 headquarter에서

인격적으로 영접한, 헌신된 주님의 제자들을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3. 신입생 프로그램과 새로운 영적 분위기 역사

새로운 학기(2019-2020)부터는 부 지부장인 스티븐 목자님에게 프로그램을 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프로그램 theme은 부흥입니다. 이번 신학기를 마치는 12월까지 계획으로 매주 목요일에 모임을 이루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방학기간에 사도행전 말씀 공부를 했던 학생들이 신입생들을 적극 초청하고 성경공부로 돕고자 하고 있으며 직장 생활로 바쁘신 현지 리더 사모님들이 새롭게 일대일을 하고자 하는 분위기를 이루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속적으로 전도하며 신입생 프로그램에 초청하여 학생들과 관계성을 맺고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와 사랑에 늘 감사드리며

우간다에서 강 지은(강 리빙스톤), 이 정남(강 그레이스) 드림.